

대한민국의 최고 명성 이어가

전주세계소리축제, 6년 연속
‘최고 브랜드 대상’ 수상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제8회 2019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 공공행정 축제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6년 연속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일보와 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 전주세계소리축제는 6년 연속 대상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라는 명성을 이어갔다.

이번 ‘브랜드 대상’은 부문별로 기초 조사를 통해 후보 브랜드를 선정하고, 소비자 리서치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소리축제는 지난해 10월 3일부터 7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 14개 시군에서 펼쳐진 가운데 예상치 않은 태풍 ‘콩레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으로 축제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국내외 음악가들의 협업 확장, 축제 공간에 대한 밀도 높은 구성, 미래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배려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며 국내외 음악가 및 평론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앞서 소리축제는 ‘트랜스글로벌월드뮤직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가 ‘제8회 2019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 공공행정 축제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6년 연속 수상했다.

트(TWMC)가 세계 각국의 민속 음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기획한 ‘베스트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박재천 집행위원장은 “대한민국 전통축제로써 국내외에서 예술성과 대중성에서 고른 지

지를 얻고 있다는 방증으로 이해하고, 더 큰 책임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축제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모든 관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뉴스

“통합문화이용권 신청하세요”

내달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 문화누리카드 발급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2019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는 재단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북도는 약 7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9만8413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혜 대상자는 6세(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이며, 올해는 기존보다 1만원이 늘어나 연간 8만원(1인당)을 지급한다.

최근 3년간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은 2016년 5만원, 2017년 6만원, 2018년 7만원으로 매년 1만원씩 증가하고 있다. 카드 발급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용은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취약계층의 문화혜택과 참여를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문화누리카드를 통

해 공연·영화·전시·국내 4대 스포츠 경기 관람(축구·농구·야구·배구)이 가능하다.

또 여행, 숙박, 문화체험, 고속·시외버스, 철도, 악기점, 각종 체육시설, 체육용품 판매점을 비롯해 스포츠 강자 이용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개인에게 발급된 문화누리카드는 필요에 따라 가족끼리 1매로 합산(최대 15매)해 사용하거나 농업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지정된 가상계좌로 카드당 10만원까지 입금·충전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카드발급과 재충전이 가능하며, 자세한 카드 사용처와 이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문화관광팀(063-230-7463)과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고향의 따뜻한 정 느끼며 소중한 추억 만드세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의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설날 한미당 큰잔치’를 개최한다.

설날 연휴 기간(2월 2~6일)에 한복을 입고 박물관 및 철새조망대를 방문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설 당일(5일)에는 박물관과 철새조망대를 무료로 개방한다.

설 당일은 투호놀이·웃놀이·떡메치기 등 체험 행사와 함께 방문객들에게 인절미와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며 고향의 따뜻한 정을 나눈다.

특히 박물관은 전시·공연 등 총 10여 개 볼거리 및 체험행사를 준비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색다른 작품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다시 군산, 근대산업의 거인들’이라는 주제로 군산경제인 특별기획전, 1층 시민 열린갤러리에서는 송월당 스님의 ‘붓꽃, 나를 놓아주는 지혜’, 근대미술관은 김영성 화백 초대전 ‘소박한 자연의 미감’, 장미갤러리는 고(故) 하반영 화백의 작품전 ‘바람을 가르는 사계’가 전시된다.

공연은 4일에 타악공화국 흠소리 사물놀이(오후 2시, 오후 3시), 5일 소담소리아트 민요(오후 2시)와 민속놀이 체험(오후 1~오후 4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설 연휴를 맞아 ‘설날 한미당 큰잔치’를 개최한다.

시)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6일에는 타악공화국 흠소리 사물놀이(오후 2시, 오후 3시)가 열린다.

김중규 박물관관리과 과장은 “귀성객들이

박물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과 공연 등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



덕유산자연휴양림에서 ‘설 명절 및 대보름 민속놀이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온 가족 함께하는 설 명절 민속놀이는 덕유산자연휴양림에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 덕유산자연휴양림에서는 오는 2월 2일부터 20일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설 명절 및 대보름 민속놀이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통놀이 체험행사는 휴양림에서 제공하는 널뛰기, 제기, 윷, 투호 등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힐링 하면서 새해의 밝은 소원을 빌어볼 수 있는 좋은 추억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부모님들에게는 동심속의 추억을 되새

기는 기회를, 컴퓨터 게임에 익숙한 자녀들에게는 전통놀이를 통해 우리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덕유산자연휴양림(탐장 안홍근)은 이번 전통놀이 체험행사를 통해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숲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용객 여러분이 즐겁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산림휴양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